

서울샘터 교회

2019년 8월 25일

교회력(다해), 전체 39주

대림절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강림후 열한째 주일** 창조절

☞ 오늘의 말씀 - 그러면 열여덟 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눅 13:16).



제목: 아기를 안은 집시 여인(Gipsy Woman with Child), 1908년/
화가: Tihanyi, Lajos(1885-1938)/ 헝가리, 현대 헝가리 갤러리

예배처 소
공동예배
간식 / 친교
교우모임
목사
홈페이지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대방동) 여성플라자
4:00~5:00
5:00~5:20
5:20~6:20
정용섭 (010-8577-1227, 053-856-1227), 박재진, 이춘우
<http://dabia.net/x/churchs>

이번주는
2층 세미나2실

개회예전

예배의 부름 ... 목사

옛적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말을 타고 달리다가 중간에 멈춰서 자신의 영혼이 따라오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살이에서도 멈추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주일이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일상을 멈추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찬송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1,2,4절 ... 다 함께

*공동기도 ... 다 함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나 앞으로 소유하게 될 것들,
그리고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이 보이는 것들과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밖에서는 허무에 떨어질 뿐임을 알기에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빛과 하늘과 땅, 그리고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신비한 방식으로 세상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종말에 모든 것을 완성하실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으며,
부활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성령의 위로를 받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믿고 희망하고 있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찬송 새로운 예배찬송 469장(거룩송) ... 다 함께



***사죄기도 ... 다 함께**

목사: 자비와 긍휼함이 끝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을 과대 포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비하하곤 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 판단에 기대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회중: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목사: 소유와 오락이 우상처럼 작동되는 21세기의 거대한 시대정신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떠밀리듯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안식을 외면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다는 사실을 오늘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회중: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목사: 지역과 지역, 세대와 세대, 계층과 계층 사이의 분열과 대립이 이 사회에 차고 넘칩니다. 서로를 향한 적대감이나, 혹은 위선이 여전히 팽배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아멘!

***침묵기도 ...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다 함께**

***사죄선포 ... 목사**

목사: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렘 33:8).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이 복된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도 약속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에게서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이웃의 잘못도 기꺼이 용서하십시오.

함께: 아멘!

***영광찬송 『한국교회와 리마 예식서』에서 ... 다 함께**

감격하여 이강민

영 - 광 을 주 님 께 영 - 광 을 주 님 께
높 이 계 신 주 님 께 영 광 -

***평화인사 ... 다 함께**

목사: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회중: 또한 목사님과도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찬송 국악찬송 180장 (좋은 일이 있으리라) ... 다 함께

오관석

한태근

굿거리 Eb Bb7 Eb Cm Eb Bb7

1. 하 나 님 을 진 심 으 - 로 부 - 르 는 - 자 는 -
2. 예 수 님 을 구 - 주 - 라 부 - 르 는 - 자 는 -
3. 성 령 님 의 인 - 도 - 를 구 - 하 는 - 자 는 -
좋 은 일 이 있 으 리 라 많 이 있 으 리 - 라 -
우 리 서 로 뜨 - 겁 게 사 랑 하 - 면 은 -
좋 은 일 이 있 으 리 라 크 게 있 으 리 - 라 -

말 씀 예 전

설교전기도 ... 다 함께

우리 삶을 말씀으로 온전하게 이끄시는 하나님, 세상의 뜯소문에 크고 작은 상처를 받은 우리가 이제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받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순전한 마음으로 이 순간 세계 교회력의 성서일과에 따라서 읽히고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1독서 예레미야 1: 4-10 ... 채진진 집사

성시교독 시편 71: 1-6 (새로운 예배시편 번역) ... 다 함께

제가주께 피하오니 저를보호 하옵시고 부끄러움 당하도록 버려두지 마옵소서
-의로우신 주님에게 이한몸을 피하오니 제게귀를 기울이사 구원하여 주옵소서
 반석되어 주옵소서 피난처가 돼주소서 제가주께 피할때에 구원성채 돼주소서
-사악한자 손아귀서 주님저를 구하소서 포악한자 손내미니 주님저를 구하소서
 하나님은 나의주님 나의희망 되시기에 어린시절 그때부터 주님만을 찾았다네
-태중에서 받아주고 날때부터 불드셔서 한결같이 의지해온 우리주님 찬양하네

제2독서 히브리서 12: 18-29 ... 채진진 집사

*제3독서 누가복음 13: 10-17 ... 채진진 집사

*응답찬송 『한국교회와 리마 예식서』의 ‘알렐루야’ ... 다 함께



설교 안식, 해방, 연민 ... 박재진 목사

설교후기도 ... 설교자

찬송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 다 함께

봉 헌 과 친 교 예 전

신앙고백 사도신경 ... 다 함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헌금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1절 ... 다 함께

중보기도 ... 목사

주기도 ... 다 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알림 ... 목사

파 송 예 전

*마침찬송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4절 ... 다 함께

*위탁의 말씀 ... 목사

이제 주일 공동예배가 끝났으니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어떤 상황이 닥친다고 해도 흔들리지 말고, 안식과 해방과 연민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으로서 담대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축복기도 ... 목사

*후주 ... 반주자

[알리는 말씀]

* 예배 후에 반별 공부모임이 있습니다.

- 그리스도교 사상사: 박재진 목사
- 과학과 신앙: 김용성 집사
- 기도와 교제: 오미영 집사
- 청소년 반: 김재남 집사

지난주일 헌금 512.000원 (주일헌금: 462.000원, 통장헌금: 50.000원)
(2019/8/18) 헌금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2-252-788537 이기령

8,9월 예배준비

| | | 예배일 | 예배 인도 | 성경봉독 | 헌금 / 안내 |
|-----------------------|--|-----------------|------------|------------|------------|
| 성령강림후 11주 8/25 | | 2층 세미나2실 | 박재진 | 채진진 | 오미영 |
| 창조절 1주 9/1 | | 2층 세미나1실 | 이춘우 | 고중홍 | 이기령 |
| 창조절 2주 9/8 | | 2층 세미나1실 | 정용섭 | 윤동희 | 양혜선 |
| 창조절 3주 9/15 | | 추석 연휴 휴관 | | | |
| 창조절 4주 9/22 | | 4층 아트컬리지3실 | 박재진 | 신창식 | 박수진 |
| 창조절 5주 9/29 | | 4층 아트컬리지4실 | 이춘우 | 이유선 | 윤혜정 |

8월 18일 설교 “정의” 발췌

제도도 역시 사람들의 생각에서 나오기에 사람의 생각이 정의로워지는 게 우선이고 본질입니다. 어떻게 사람의 생각이 정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마이클 샌델의 책을 읽으면 정의로워질까요? 그 책을 수백 번 읽어도 사람은 정의로워지지 않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정의로워질 수 있다면 아마 법학대학원 교수들과 국회의원들이 가장 정의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법은 정의를 세우는 질서이니깐요. 정의에 관한 법의 규정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과 실제로 정의로워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법을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법을 이용해서 불법을 할 수 있는 동물이 인간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세상은 바뀌지 않으며, 잠시 바뀌는 것처럼 보여도 다시 본색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은 인간의 본질이 어떻게 하면 정의로워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앞부분에서 인간의 의로움에 관해서 매우 정확하고 강력하게 발언합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율법이 인간을 의롭게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의가 더 중요했습니다. 율법은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리킬 뿐입니다. 롬 3: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정확한 진단입니다. 로마서가 말하는 율법은 오늘의 실정법입니다. 붉은색 신호등 앞에서 차는 멈춰야 합니다. 돈을 번 사람은 거기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모두 법을 일단 지켜야 합니다. 유대인들도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율법이나 실정법은 세상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질서입니다. 저는 앞에서 법조인이 무조건 정의로운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법은 사람이 너무 나타나지 않게 하려는 임시조치입니다. 오늘도 국회에서 끊임없이 법을 만들어내는데도 세상이 별로 정의로워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인간 사회의 딜레마입니다. 지켜야 할 법을 만들었지만, 누구도 완전하게는 지킬 수 없으니, 거기에 매달릴수록 절망하게 됩니다. 법망을 빠져나갈 연구만 합니다.

바울은 율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났으니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롬 3장에서 반복합니다. 로마서 전체가 이 사실을 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롬 3:24절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라는 표현은 정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므로 이미 정의로운 사람들이, 즉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의롭게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근본적으로 정의롭지 못합니다. 정의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사회 정의를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삶의 자세이지만, 그들 역시 정의롭지 못하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말만 진보를 내세우지 실제 삶에서는 세상의 진보에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 정의를 실천하려고 치열하게 투쟁하는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는 자기 잘난 듯이 독선적으로 삽니다. 이윤배반적인 모습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런 전형을 우리는 복음서에 등장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봅니다. 무슨 말인가요? 사람은 본질에서 위선적이고 모순적입니다. 성경은 그런 본질을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이 정의 실천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이나, 하는 질문이 가능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사람이 정의를 추구하는 것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하는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세상을 바로 세우겠다는 야망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의를 붙든다는 소명으로 정의롭게 살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이게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전혀 다른 삶의 태도입니다.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정의로워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거나 그런 일을 피하려고 핑계거리를 찾는다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에게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경험이 없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